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7월 21일

교회력(다해), 전체 34주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여섯째 주일 창조절

☞ 오늘의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눅 10:41,42).



카모마일의 번식력은 대단하다. 주인이 돌봐주지 않는데도 씩씩하게 잘 자란다.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해를 버텨내면서 소란스럽지 않게 색깔과 향기를 드러낸다.

예배처 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이번주는
4층 세미나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애를 써야겠으나 그런 조건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3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큰 능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며 매혹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참되고 부분적으로만 의로울 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변함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능력을 보이시며,
무(無)로서 유(有)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허망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기쁨과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공연한 걱정과 험싸이기도 하고, 과도한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것의 실체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깊어지지 못하고 늘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여전히 우리는 생각과 말에 서툰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숙한 생각과 말로 인해서 이웃들이 실족하거나, 우리 자신의 삶이 훼손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과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전통에 따라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 일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36장 (할렐루야) ... 다 함께

이소희

김효성

세마치 (여성) (남성) (다함께)

1. 할 렐루 야 - 할 렐루 야 - 성 소에 서하나님
2. 나 팔소 리 - 하 늘까 지 - 우 령차 게그 -를
3. 바 라치 고 - 땅 끝까 지 - 징 울치 며찬 -양

(여성) (남성)

찬 양 할 렐루 야 - 할 렐루 야 -
찬 양 나 팔소 리 - 하 늘까 지 -
하 라 바 라치 고 - 땅 끝까 지 -

(다함께)

성 소에 서하나님 찬 양 하 늘에서 그 위 력을
우 령차 게그 -를 찬 양 거 문 고와 수 금 타며
징 울치 며찬 -양 하 라 손 뻗 치며 소 리 높여

(여성) (남성) (다함께)

찬 양 하 여라 - 찬 양 하 여라 - 엄 청 난 일
찬 양 하 여라 - 찬 양 하 여라 - 복 을 치 고
하 나님 찬양 - 하 나님 찬양 - 숨 을 쉬 는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진리와 생명의 주님, 이제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여기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토대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양은 화려하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세상의 생각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성) (남성)

행하셨다 찬양하여라 - 찬양하여라 -
 춤추며 찬양하여라 - 찬양하여라 -
 모든 생명 하나님 찬양 - 하나님 찬양 -

(다함께)

할렐루야 - 할렐루야 - 그 지없 - 이 높 - 으
 할렐루야 - 할렐루야 - 현 금 뜰 - 고 피 - 리
 할렐루야 - 할렐루야 - 찬 미 찬 - 송 찬 - 양

시 다 찬양하여라 - - -
 불 며 찬양하여라 - - -
 하 라 할렐루야 - - -

loco

제1독서 아모스 8: 1-12 ... 윤동희 집사

성서교독 시편 52편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세력있다 하는자야 어찌악을 자랑하나 경건한이 해친것이 자랑삼을 일이더냐
-칼날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혀를놀려 꺾는일 속임수요 꾸미는일 악행이라
 선한일을 멀리하고 악한일을 즐거하며 진실보다 거짓됨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간사하고 교활한혀 이리저리 놀려대며 뒤바꾸고 섞어놓아 망치는일 네일이라
 하나님이 너를잡아 영영토록 없애실때 사람사는 이땅에서 네장막도 거두시리
-이를보는 의인들은 하늘향해 경외하고 사라지는 너희에겐 비웃으며 말하시리
 저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않고 가진재산 의지하여 악한세도 부린자라
-하나님의 집에있는 감람나무 같은나는 하나님의 크신사랑 영원토록 의지하리
-주 하나님 베푸사랑 찬양하며 감사하리 인자하신 주의이름 증거하며 전파하리

제2독서 골로새서 1: 15-28 ... 윤동희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0: 38-42 ... 윤동희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배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 = 70

주 님말씀 복 되어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 님말씀 사 모하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설교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 ... 박재진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마르다처럼 성실하면서도 온갖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 삶에 정작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평생 걱정하면서 살기는 원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서 성취해야 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들어맞는 대답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2,4절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후 여섯째 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오늘부터 하반기 예배 후 공부모임이 시작됩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지난주일 헌금 570,000원

(2019/7/14)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7,8월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성령강림후 6주	7/21	4층 아트컬리지5실	박재진	윤동희	오미영
성령강림후 7주	7/28	4층 아트컬리지5실	이춘우	고중흥	박수진
성령강림후 8주	8/4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신창식	이기령
성령강림후 9주	8/11	4층 아트컬리지5실	정용섭	이유선	윤혜정
성령강림후 10주	8/18	4층 아트컬리지5실	이춘우	김용성	양혜선
성령강림후 11주	8/25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채진진	오미영